

옛 전남도청 5월 항쟁 상황 그대로 재연한다

복원단, 전시계획 용역 보고회
18일~27일 9일간 역사적 사진
홀로그램 등 첨단기법 활용
5월 당시의 모습 시민 품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항쟁 지였던 옛 전남도청의 1980년 5월 당시 모습과 상황이 고스란히 재연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복원단)에 따르면 복원단은 최근 '옛 전남도청 복원공간 전시 기획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복원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 '복원'과 '전시'를 두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이뤄지고, 전시는 당시 상황을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지속성을 담은 형태를

계획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은 외형은 1980년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안에는 당시 현장을 기념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는 게 복원단 측의 설명이다. 복원단은 5·18민주화운동기간인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옛 전남도청 내·외부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복원된 공간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활용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것) 기반 하에 홀로그램 등 첨단기법을 활용해 재연한다. 5·18 당시 모습으로 옛 전남도청을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동에 대해 5·18당시 주요 상황들을 재연하고, 당시상황을 미래세대에 있는 그대로 전승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관은 시민군 지도부의 활동이 있었던

장소로 5·18 기승전결과 5·18 희생자의 관련 내용이 전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본관은 1층에 서무과(시민군 상황실), 지방과(시민군 조사과)가 있었고, 2층의 부지사실에는 수습대책위원회 회의실과 총기교육이 실시된 기획 관리실이 있었다. 도지사실과 상황실이 있던 본관 3층에는 각각 수습위원회와 유가족들의 면담장면·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 항쟁의 공간이자 윤상연 열사의 시신이 확인된 도청 회의실도 당시 모습으로 돌아간다. 별관은 시민 대표와 도지사가 면담하거나 시민군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갖던 장소이며, 시민군이 최후항쟁을 결의한 장소이다. 경찰국 본관은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이었지만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를 지녔던

안병하 국장의 이야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국 별관은 5·18 당시 특별한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상무관은 5·18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장소로 당시 시민들의 희생을 추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복원단은 옛 전남도청 내부에 현재 설치돼 있는 전시물들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술성을 고려한 전시물들이라 일부 철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도형 복원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마치고, 바로 전시설치가 진행될 것이다"면서 "외형 복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시도 끝마쳐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한유총 전간부에 선물 받아

배우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료 청탁금지법 위반 구설에 오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결국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가족과 저를 믿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의 부인 A씨는 직선3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B씨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와 전복, 굴비, 손잡, 스키프, 계란(초란) 등이다. A씨와 B씨는 목포 모 여성 동문으로, 교육감 부인이 선배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 교육감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렸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해 9월 광주지방방법원에 신고처리했다. 한편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과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다"며 "청렴 광주 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으로 교육계 전체가 부정적 시각에 놓인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호남통일교육센터와 남북교류 협업체계 구축

광주 남구는 최근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에 발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호남통일교육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과 김영록 호남통일교육센터장은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병내 구청장이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역사회 통일 분위기 조성 위한 일환으로, 호남통일교육센터와 역할 분담 및 협력 사업 강화로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토대를 쌓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남구는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추진시 호남통일교육센터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호남통일교육센터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비롯해 포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코로나19 퇴치 기원합니다" 국태민안과 코로나 19 퇴치를 기원하는 2020 광주사적대제가 25일 오전 광주 남구 사적공원 내 사적단 광장에서 열렸다. 사적대제는 삼국시대부터 전해 온 의식으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원시 공동체의 제사에서 비롯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원 사생활 보호 안심번호 서비스

전남교육청은 교원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전화 연락 시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며, 문자 수발신도 가능하다. 교사는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한 후, 수업 시간과 근무시간 외에는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노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의원 방역작업 수의계약 압력 의혹

시의원 가족 회사가 일감 따내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이 구청 수의계약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부터 모 업체와 총 4건의 방역·소독으로 2425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수의계약에 A(민주당)의원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구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총 4차례 방역·소독을 이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50만~950만원까지 수의계약 한도 내로 책정됐다. 또 A의원이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업체는 민주당 소속인 B시의원의 가족이 관계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B의원의 배우자가 32% 가량의 지

분을 가지고 있었고, 업체 대표는 B의원의 매형이다. A의원은 "지난해 2월 구청 담당 부서 과장을 찾아가 영세한 장애인 업체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 했다"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B의원이 '영세한 장애인 업체를 도와달라'고 해 소개했을 뿐, 부정청탁이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의원은 "A의원에겐 관례적으로 부탁한 것 같다. 최근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업체의 지분도 처분했다"면서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바도 없고, 북구에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배우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북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30일 징계 처분이 결정된 북구의회 C의원은 해당 업체의 감사자에 2018년 6월까지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공공일자리 '우리동네 청결사업' 본격 추진

광주 동구가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 기에 나섰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형 공공일자리 '우리동네 청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18

세 이상 70세 미만 참여자 400명을 선발했다. 구는 오는 3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곳곳에 사업 참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사업 연계로 향후 쓰레기 감량과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게 동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